



백운포 마리아 항만 조성 사업 본격 추진

사업설명회 열고 민간투자자 모집... 내년 착공 2015년 완공 예정

백운포 일원에 추진 중인 마리아 항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

부산시와 남구는 지난달 용호동 백운포와 인근 해역에 마리아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 시행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시와 구는 사업대상지 4만3,800㎡에 요트와 보트 100척 규모의 계류장을 비롯해 클럽하우스와 교육·체험시설 등을 갖춘 거점형 마리아를 조성하기 위해 300여억 원을 민간투자 형식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구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 제안 등 관련절차를 직접 이행하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마리아 시설을 조성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을 분개도에 올리기 위한 설명회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 부산시, 남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시는 3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제출된 사업계획을 평가, 검토한 후 올해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용호동 백운포 일원에 요트와 보트 100척 규모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춘 백운포 마리아 항만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 빨간색 부분이 사업 대상지.

오는 2015년 완공될 계획이다.

한편 백운포는 주변의 오륙도와 이기대공원 등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최적의 마리아 입지여건을 갖춰 국

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수립한 마리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백운포 마리아

항만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한 전국적인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월11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합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1일 남구지역 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관련기사 2면>

투표시간(오전6시~오후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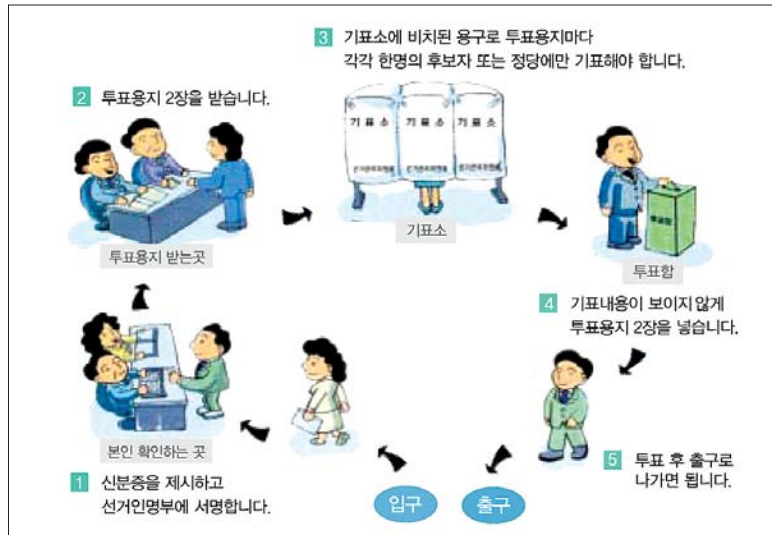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이번 선거는 남구갑(대연·문현동)과 남구을(용호·용당·감만·우암동)로 나뉘어 실시되며 1인 2표제(후보자, 정당)로 진행된다. 남구의 전체 유권자는 남자 약 118,000명, 여자 124,000명 등 모두 약 242,000명이다.

신분증 꼭 지참해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는 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한 만 19세 이상 주민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면 된다.

투표용지 후보자·정당용 2매

투표소에 들어서면 바닥의 화살표를 따라 투표하면 된다. 먼저 본인을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를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2매(지역구·비례대표)를 받는다. 단, 국내거소신고증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미만 거주등록자는 비례대표선거권만 부여되므로 비례대



표투표 용지만 받을 수 있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 선택용이며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 선택용이다.

투표용지를 받고 난 후 기표소에 들어가 이곳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무효처리 주의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한 것과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된다. 또한 성명을 적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과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도 무효다.

SNS 선거운동 허용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SNS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됐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된다. ☎607-4112

활기차고 살기좋은 남구가꾸기

새봄맞이 도심 환경정비·나무심기 나서



남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구청직원 등 150명은 식목일 앞둔 지난 22일 이기대에서 편백과 동백나무를 심었다.

남구는 새봄을 맞아 나무를 심고 도심환경 정비에 나서는 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일제히 조사해 정비

기로 했다.

이규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요인과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해당 부서와 유관기

관 등에 알려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원과 해안가를 비롯한 도심 내 불결지를 각급 봉사단체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남구는 내달 13일을 새봄맞이 도시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고 공무원과 각급 단체원, 주민 등이 국회의원 선거 잔재물은 물론 불결지를 말끔히 정비할 예정이다.

남구는 제67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2일 이기대 어울마당 일원에서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남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공무원 등 15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편백과 동백나무 등 4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푸르고 아름다운 남구 가꾸기에 나섰다. 나무를 심은 곳은 지난해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을 복구한 지역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산림기능을 회복, 숲이 우거진 이기대의 산림경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해복구지역은 오래전부터 이기대에 자생하고 있는 수종인 동백나무와 편백을 심어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이기대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4월16일 부경대 대학극장서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연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16일 오후4시 부경대 대학극장에서 열린다.

설명회에는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이 초빙돼 2013학년도 입시 전략과 수능 영역별 대비 전략 마련 등 입시 준비사항 전반

에 대해 알아본다. 강사는 이승희 서울종로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과 김윤수 부산종로학원 평가실장, 부경대 입학사정관 등 모두 3명.

고등학교생과 학부모, 입시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강사들이 직접 집필한 입시설명회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 ☎607-4511~5

한미 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환급

FTA,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하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들은 일부를 돌려받는다. 정부는 한미 FTA발효로 지방세

법 '승용·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인화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남구의 자동차세 환급 대상 차량은 모두 2,089대이며 금액은 7,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조치를 예정이다. ☎607-4234

남구노인복지관 중축 마무리

탁구장 당구장 등 운동시설 들어서

최근 들어 남구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남구노인복지관은 지난달 21일 현재의 건물 4층에 연면적 172㎡ 규모의 중축공사를 준공하고 이곳에 탁구장과 당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그동안 3층에 위치한 탁구장 등 노인여가시설이 협소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법원전입금 1억여원을 들여, 지난 1월 중축공사에 들어갔었다. 대연5동에 위치한 에립남구노인요양원도 최근 개·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로 거듭났다.

남구의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인 계명노인건강센터도 신축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준공했다. 용호1동에 위치한 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99㎡ 규모로 지어졌으며 최신시설과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잇달아 신축되거나 증축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 새봄 달려요-남구 자전거 생활교실 운영 ▶3면
- 남구도서관·남구문화원-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설 ▶4면
- 만학도 꿈이 영근다-문현3동 남부초등학교 ▶5면
- 대연3동 생활민원 현장상담실-내달 12일 운영 ▶6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려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입니다

<h3>어깨·손</h3> <p>관절팀 부원장 조창현 정형외과 전문의</p> <p>교목연구부 과장 임문섭 정형외과 전문의</p> <p>의무원장 허현 정형외과 전문의</p> <p>전주팀 부원장 최재상 정형외과 전문의</p> <p>전과과장 최승현 정형외과 전문의</p> <p>전과과장 전상호 신경외과 전문의</p> <p>관관절 클리닉(어깨) 관관절내시경 클리닉</p>	<h3>목·허리</h3> <p>전과과장 최승현 정형외과 전문의</p> <p>전주팀 부원장 최재상 정형외과 전문의</p> <p>전과과장 전상호 신경외과 전문의</p> <p>척추관 협착증, 목·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척추변형</p>	<h3>무릎·엉덩이관절</h3> <p>의무원장 허현 정형외과 전문의</p> <p>부원장 김인환 정형외과 전문의</p> <p>이사장 김철 정형외과 전문의</p> <p>인공관절 클리닉, 무릎관절내시경 클리닉, 재활치료 클리닉</p>	<h3>발·발목</h3> <p>전과과장 김대경 정형외과 전문의</p> <p>전과과장 강영훈 정형외과 전문의</p> <p>족부 클리닉(발목관절 및 족부), 외상 클리닉</p>
--	---	---	--